

“해수부 부활” 300만 서명운동

여수 35개 수산단체·지역 정치권 나서

“예산 매년 10% 삭감에 지역경제 위축”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수지역 수산인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지역 수산인들은 최근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3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민주통합당은 당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여수지역 35개 수산단체가 참여한 여수 수산인협회(회장 신갑년)는 “오는 20일부터 전남·북도와 충청도 지역까지 해수부 부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해수부 부활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표로 삼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여수 수산인협회 관계자 100여명은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 주최의 궐기대회에 참석하고, 해양수산부 부활 여수운동본부 구성에 들어갔다.

이날 해국본은 “해수부 폐지로 관련 예산이 매년 10%나 삭감됐고, 해수부 시절에 비해 해양·수산정책 등이 후순위로 밀려나 수산도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바다를 버리는 정당을 표로 삼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성곤의원

과 여수시의회 김영규의장 등이 지난 달 20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해수부 부활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갑년 회장은 “해수부 시절에는 해양수산 정책이 살아 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되면서 수산정책이 실종됐다”며 “농업과 식품에 치중하다 보니 수산전문직 하나 없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 주최도 해양이지만 특히 해양환경 분야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토해양부의 경우 도로, 철도, 주택 분야의 비중이 너무 커 상대적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에 이미 이 문제를 건의해 놓은 상태고 여당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며 “해수부 부활은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해상경제 문제로 경상남도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산인들이 힘을 합쳐 해수부 부활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일은 의미가 깊다”며 “여수시도 수산인들의 목소리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총선후보들이 총출동해 ‘해수부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수산인들의 해수부 염원에 힘을 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구례 지리산 고로쇠 드세요” 구례 고로쇠약수 영농조합법인(대표 양해춘)과 재여수 구례향우회는 최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고로쇠 수액 무료 시음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객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찾아와 해발 1000m 이상의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 맛을 봤다. <구례군 제공>

해양수산비리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 관련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여수해경은 “각종 이권과 관련되어 실력을 행사하고 비리를 일삼는 사회지도층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68일동안 권력·토착·기업형 비리에 대해 수사력을 최대 집중하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선·해운업체 등 해양 관련 기업형 비리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방송·신문기자 등을 사칭한 사이버 기자의 금품갈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0건을 적발해 6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책 읽는 순천’ 만들기

영유아~어른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책 읽는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에서 어른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독서방법 지도를 위해 태교와 아가를 위한 예비 엄마교육을 비롯해 ▲영유아를 위한 북 스타트 소리바자 교실 ▲매일 자원활동가들이 어린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부모 독서교육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좋은 책 골라 재밌게 읽는 방법 ▲어린이를 위한 책읽기와 글 쓰는 방법 ▲재미 있는 고전 읽기 특강 등 프로그램

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좋은 책 골라 재미있게 읽는 방법’ 강좌는 4월부터 각 도서관에서 유아와 학부모, 초등, 중등, 성인반을 개설해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며, 책 읽어주는 매월 각 도서관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민은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책을 주입식으로 읽어줄 경우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이번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749-6957)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j@

중국인에 ‘여수박람회’ 홍보

김충석 여수시장 中 CCTV 출연

김충석 여수시장이 13일 중국인과의 중국인을 상대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홍보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충석 시장은 중국 베이징 CC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CCTV 4채널의 ‘도시 1대1’ 프로그램 녹화에 중국 국제 우수도시인 리수이(麗水) 시 투즈웨이 서기 등과 출연했다. <사진>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생태도시’라는 주제로 양 시의 우수한 생태 및 자연환경과 환경보호 정책 등을 소개했

다. 특히 김시장은 바다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에너지·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언급, 자세히 소개했다.

CCTV 4채널의 ‘도시 1대1’ 프로그램은 중국내 한 도시와 국제 교류도시인 관계자를 초청, 매월 선정 주제에 대한 각 시의 특색과 우수한 점에 대해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녹화된 분량은 4월 초 중국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CCTV 4채널의 경우 중국어 국제 채널로 전 세계 약 1500만 가구에 달하는 재외 중국인들을 시청자로 확보하고 있어 중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외 중국인들에게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2일 오전에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방문, 이규형 대사에게 중국인 관람객이 편리하게 여수 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등의 행정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전 북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치명자산성지

전통·젊음 어울림 거리로

전주시 특색거리 조성

전주교육대학 앞 대학로가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거리로 변모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인근에 자리한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과 전주교대 대학로, 산성공원, 치명자산성지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시는 친환경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창출을 위해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도비 등 15억을 확보해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산성마을 담장에

스토리가 있는 벽화사업을 벌였다.

특히 산성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방문객 지원센터로 활용,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특화체험·판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휴식처와 편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중에 ‘시나브로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서확장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앞 대학로 특색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인도조성과 함께 한글의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테마로 한 특색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전주교대 앞 대학로 거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장류축제’ ‘웅기축제’ 시너지 효과

순창군·울산 울주군 문화교류

순창군과 울산 울주군이 지역의 대표 축제인 ‘장류축제’와 ‘웅기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를 펼친다.

순창군은 “5월 열리는 울주군의 ‘웅기축제’와 오는 11월 개최되는 순창 ‘장류축제’에 양 자치단체가 상호 참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자치단체는 이들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상호 축제에 참여해 ‘장류축제’와 ‘웅기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허만영 울주군 부군수는 지난 8·9일 이틀간 순창군을 방문해 순창군과 문화교류를 논의한데 이어 순창군의

고추장 민속마을과 장류사업소를 찾아 밭출 미생물센터 등을 견학했다.

허 부군수는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지난해 협약식이 양 지방자치단체의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양 지역축제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 장류와 울주 웅기가 만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한류문화가 세계화되는 추세에 전통문화의 웅기와 고추장의 만남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자연에 묻힌 ‘백제 王都’ 실체 찾기

익산시 2021년까지 3652억원 투입

금마면 일대 유적지 보존사업 추진

익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10년간 금마면 일대에 단계적으로 3600여억 원을 투입해 유적지 보존과 주민지원 사업 등 고도(古都) 보존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경주, 공주, 부여와 함께 고도지구로 지정됐다.<광주일보 3월 7일 11면>

시는 백제시대에 한때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마면 일대 121만㎡에 오는 2021년까지 3652억원(국비

1156억·지방비495억·민자 200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마면 동고도리와 서고도리 등 2개 리(里) 일대에 지정된 고도지구는 특별보존지구(29만3천㎡)와 역사문화환경지구(92만㎡)로 나뉘어 보존, 육성된다. 이 기간에 ▲육룡천 물길 재생 ▲금마도토성 발굴 ▲익산향교 정비 ▲금마관아(객사) 발굴 ▲역사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의 문화재 보존정책이 규제 위주로 진행됐던데 반해 이번 고도 보존사업은 문화재 보호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아 터와 금마로, 육룡천 정비 등을 통해 백제역사의 골격을 회복하고 자연속에 묻혀 있던 백제 왕도(王都)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익산의 경이로운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역사유적지구는 지난 2월 공주, 부여와 함께 ‘(가칭)백제 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등재 우선추진 유산에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군 정책 아이디어 발굴 ‘버스터어’

순창군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버스터어’를 실시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직자들이 지난 10일 장승대목적면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1월부터 군정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버스터어’를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단신

완주, 구이면 덕천리에 ‘술 테마타운’ 조성

완주군은 오는 2014년까지 236억원을 들여 구이면 덕천리 일대 부지 6만3000㎡에 ‘술 테마타운’을 조성한다.

테마타운에는 술 박물관과 비즈니스관, 교육관 등이 들어선다. 술 박물관에는 소줏고리, 누룩틀, 술병, 술 항아리 등 전통주와 관련된 유물과 주류업체별 술병, 각종 상표 등이 전시된다.

또 술의 종류, 주도(酒道)에 관한 고서, 옛 주류제조 면허증, 주류경연대회 상장 등의 자료 1만5천여 점도 갖춘다.

이와 함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장이 들어서고 관광객에게 전통주 제조법도 교육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온라인쇼핑몰 새단장 사인 이벤트

군산시 농·수산물 쇼핑센터인 군산팍은 온라인 쇼핑몰(www.gunsanfarm.co.kr) 새단장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동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고객 30명과 구매 후 상품 사진과 함께 구매후기를 작성한 고객 5명에게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구매고객 중 추천을 통해 당첨된 30명에게는 군산시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 쌀’(800g)과 흰쌀찰보리쌀(400g)을 2개씩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4월 5일 군산팍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 3개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정읍시에 위치한 3개 기업이 지난 11일 전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기업은 ㈜유기농비건, (유)두레아미, (세)신체장애인 정읍시협이다.

이 기업들은 각 5~30명에 대한 매월 1인당 90여만원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

는다. 또 2년간 재심사를 통과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이후 3년동안 지원이 연장된다.

정읍시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과정 운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기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축산과학원 축산 신기술지원 MOU

김제시와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은 최근 시청 2층상황실에서 축산업 선진화와 축산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기술지원을 위해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과학원은 ‘지평선 한우’의 가축개량에

필요한 육질개선을 비롯해 ▲사료제조 및 급여프로그램 및 기술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기술 ▲축산농가에 접목이 가능한 사업 발굴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